

할까 말까 하지 말아라

본 문 누가복음 24장 25-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 곧,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다.
2.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두고 “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두고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다.
3.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잘 행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첫째, ‘행하려고 계획 했을 때’와 ‘행할 때의 마음’

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행하려고 계획 했을 때’와 ‘행할 때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처음에 행하려고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이다.

4. 할까 말까 할 때, 기어이 행하고나서 보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된다. 고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5.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害)가 될지라도 행하여라. <자기 생각>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해(害)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행하면 영광으로 뒤바뀐다.
6.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행해야 될 일>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
7. <고난 후>에 ‘영광의 역사’다. 그러나 행해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
8. 지금은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시대>이며,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을 받는 때>다. 행하는 대로 ‘영광’을 받는 때이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두고 행해야 된다.
9. 그 순간 생각이 변하고 상황이 돌아가서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니 행하여라.
10. 할까 말까 하지 말아라.

11.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면 손해가 가고, 하면 엄청나게 얻게 된다.
12. 선생이 피곤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니,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한 사람이 운동화 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계속 앞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끈을 묶으려면 반드시 앞아야 하는데 계속 앞을까 말까하고 있었다. 선생이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한 남자를 보여주시며 “이와 같이 내가 그러하다.” 하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고로 결국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13.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할 일인데, 속 보이지 말고 해라.” 하셨다.
14.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독하게 해야 된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15.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시며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16.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이니, 하면 할수록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고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17. 사람은 대개 행할 때가 되면, 잘 안 해진다. 왜? 첫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각과 실체는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약해기 때문이다. 넷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8. 십리역사를 펴 오면서 악한 자들이 막고 반대하고 핍박했어도, 고통의 십자가를 졌을 때도, 힘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시대 보낸 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 주며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왔다. 결국 시대 십자가를 다 지고서 이제는 ‘영광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19. <영광의 시대>를 맞았으니,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해라.
20.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못 할 것이 없다. 그러니 한 번 하겠다고 계획 했으면, 행하여라.
21.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절대 해야 된다.
22. <자기>만 행하면, ‘상대’도 행하게 된다.
2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한다.” 하셨다.
24.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해서 해 준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 줬는지를 깨달아라.” 하셨다.

〈전환〉

25. 종교인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학자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도 모두 미련하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기 때문이다.
26. 성경의 말씀대로 100% 된다. 하나님은 당세에 못하면, 후대에 정녕코 행하시어 선포한 말씀을 이루고야 마신다.
27.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절대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한 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28. 때가 되어 하나님은 땅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나, 이를 더디 믿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행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야 된다.
29. <이 시대>를 더디 믿지 말아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이루고 가고 있지 않느냐.
30.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절대 믿고 행하여라.
31. 하나님은 할까 말까 하지 않으신다.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32.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속 보이면서 하지 말아라. 할까 말까 생각할 시간에 빨리 해라. 뛰어라.

33.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 다. 고로 <할까 말까 하는 자> 역시 ‘확실히 살아있는 자’ 가 아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해야 된다.
34. 하면, <병>도 낫고, <힘>도 오고, <능력>도 오고, <권세>도 오고, <인구름>도 모여 든다.
35. <전도>도 할까 말까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해야 된다.
36. <미결수의 생각>은 하지 말고, ‘확실한 생각’ 으로 해 나가기 다.
37. <하나님이 한번 잡아당긴 화살>은 바위든, 땅이든, 어디든지 내려 쏘여야 된다. 가다가 중단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절대 행하여라.